

한국판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ATDV) 타당화*

남 정 훈¹⁾ 서 종 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 ATDV(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를 국내 성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트폭력 태도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 수용 및 정당화 수준을 의미한다. ATDV 척도는 폭력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총 여섯 개의 척도로 구성된다. 원저자와 협력하여 번안 과정을 거친 후, 국내 성인 남성 305명과 성인 여성 304명을 대상으로 평정척도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Rasch 분석에서 각 척도는 일차원성을 만족하며, 문항의 응답 범주는 4점 척도가 적절함을 보였다. 문항 적절성 분석 결과, ATDV 남성 척도는 39개 문항 중 세 개, 여성 척도는 37개 문항 중 두 개를 제외하고 적절성을 보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ATDV의 여섯 개 척도가 모두 1요인 구조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이 구조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준거척도와의 수렴타당도 및 상관분석을 통해, ATDV 척도가 데이트폭력의 유형과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측정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데이트폭력 예방 및 개입 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태도(ATDV), 타당화, Rasch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 본 논문에 도움을 주신 University of New Brunswick 심리학과 Sandra Byers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namhun1998@gmail.com

†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E-mail: jonghansea@yu.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데이트폭력은 Makepeace(1981)가 대학생들의 구애기 폭력(Courtship violence)을 연구하면서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데이트하는 상대방에게 가하는 신체적 공격행동으로 정의되었다. Carlson(1987)은 '낭만적인 관계의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의 폭력'이라 정의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이 교제 중인 비혼 상태의 친밀한 파트너 간에 발생하는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한 유형임을 시사하였다. 이후 데이트폭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진전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도 변화하였다.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교제 관계에서 서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Straus et al., 1996; Anderson & Danis, 2007; Toplu-Demirtaş et al., 2022). 폭력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데이트폭력에 경제적 폭력과 통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도 주장되었다(이화영, 2014). 학자마다 데이트폭력을 분류하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수정, 김은영, 2022).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유사한 개념으로 정리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개념이 확장된 배경에는 국내에서 데이트폭력 발생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경찰청(2020)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4,136건에서 2019년 19,940건으로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 폭력 실태조사의 7,000명의 사례에서 5%가 당시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다. 이들 중 성적 폭력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제216-2호; 2023.2.1.)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자신 또는 가족, 지인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외 데이트폭력 연구 동향

국외에서는 Makepeace(1981)의 연구를 기점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이라는 특성이 강조되며, 데이트폭력이 하나의 독립된 폭력 유형으로 개념화되었다. 이어진 연구들은 데이트폭력이 연령, 성별, 관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규명하였고,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Fellmeth et al., 2013).

초기에는 데이트폭력의 개념 정립과 실태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후 연구들은 폭력 발생의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데이트폭력의 위험 요인으로는 부모 간 폭력 노출, 공격성 수용, 감정 조절의 어려움, 높은 음주 빈도, 파트너와의 갈등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Baker & Stith, 2008). 이러한 경험과 특성들은 개인이 데이트폭력 상황에 노출되거나 이를 행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연구에서 주요한 논쟁 중 하나는 성별에 따른 가해 및 피해율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쟁은 데이트폭력을 넘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연구 전반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젠더 연구자와 가정폭력 연구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Winstok et al., 2017).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지지한다. 이들은 폭력의 원인을 성별 권력 불균형에서 찾고,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이해한다(Michael et al., 2023). 실제로, 여성을 차별하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파트너 폭력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보고되었다(Bares et al., 2014).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하는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남성의 일방적 가해로만 볼 수 없으며, 여성 또한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는 상호작용적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 대칭(gender symmetry)’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여성 역시 남성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iebert, 2014). 이러한 성 대칭적 경향은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 커플의 단기 및 장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raus, 2008; Luo, 2021). 이와 같은 논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이해함에 있어 성별 권력 불균형뿐만 아니라 개인적 및 관계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폭력 발생의 외적 요인이나 과거 경험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폭력 발생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Cornelius & Resseguie, 2007; Toplu Demirtaş et

al., 2017).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 폭력의 수용, 권력 불균형 인식과 같은 개인의 태도적 요인이 데이트폭력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가 축적되었다. 개인의 태도는 단순한 사고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는 태도는 실제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에, 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둔 개입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rice et al., 1999).

이에 따라, 국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개입 전략에서는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Whitaker et al.,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국외에서는 Safe Dates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데이트폭력의 행동적 변화와 태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예방과 개입은 이후 긍정적 효과가 다수 보고되었고(Foshee et al., 2004; Wolfe et al., 2009), 단순히 폭력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성평등 인식, 갈등 해결 능력, 감정 조절 기술 등 심리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데이트폭력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이성교제폭력’이라는 명칭으로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처음 시작되었으며(이영숙, 1998), 2000년대 중반까지 발생 실태와 제한적 위험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데이트폭력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임유하 외, 2020). 이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매해 급증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학계의 관심 역시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이현정, 2018). 사회적 이슈화에 따라 학술적 논의가 활발해졌고, 기존에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데이트폭력 문제는 보다 구조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되기 시작했다.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년기 아동학대 경험, 또래 괴롭힘 경험, 부모 간 폭력 노출, 가정폭력 피해 등이 성인기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적 행동과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기, 사공은희, 2007; 신소라, 김연수, 2016; 박하나, 장수미, 2012). 또한, 연인 간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 조절 어려움, 폭력 허용도, 용서 성향 등은 폭력적인 관계의 지속 및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로 지목되었다. 최근에는 가해와 피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부민감성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거부민감성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과 과민한 반응을 특징으로 하며(Bondü & Krahé, 2015; Downey et al., 1998), 개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자동적인 인지·정서적 반응을 촉진하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적 기제가 높을수록 교제 관계에서 더 큰 불만족과 갈등을 경험하며, 데이트폭력 가해와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소, 이지연, 2021; 강민희, 2023). 반대로, 높은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 경향이 결합될 경우,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데이트폭력 피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윤지환, 김경미, 2024).

최근 국내에서는 성역할과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트폭력 연구에서도 이들 주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순응을 당연시하는 성역할 기대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행동을 정당화하여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과 허용적인 태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한정희 외, 2021; 박지희, 윤옥경, 2023). 이처럼,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젠더 감수성은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성차별적 사고나 행동을 성찰하는 경향을 의미하며(이진영, 2011; 이화숙, 2016), 데이트폭력과의 높은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홍영오 외, 2015). 젠더 감수성이 낮을수록 통제 행동이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높은 젠더 감수성은 통제 행동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간 관계를 완화한다(김진숙, 문화진,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성평등 의식 함양과 젠더 감수성 증진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을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시도가 점차 시작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과 그 하위 요인인 특권의식에 주목하여 데이트폭력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한울, 박지선(2022)은 특권의식이 통제행동과 관련되며, 이 관계에서 사회지배 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이 매개로 한 간접효과 또한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특권의식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서진, 박지선, 2021). 이는 국내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과 어두운 성격 특성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려는 초기 시도를 보여준다. 국외의 경우, 사이코패시(psychopathy)나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 등 다양한 어두운 성격 특성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Plouffe, Wilson & Saklofske, 2022),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점차 반영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을 포함한 다양한 어두운 성격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시도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문제

국내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양적 증가는 고무적이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데이트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연구 주제의 편중성이 지적된다(이현정, 2018). 선행 연구들은 가정폭력 경험이나 용서 경향성 등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이 데이트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데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자칫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환경과 성향으로만 귀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임유하 외, 2020). 결국, 데이트폭력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방해하여, 폭력 발생 메커니즘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 대상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의 대다수가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에 있어 본격적으로 이성 교제를 하는 시기가 대학 시기이고 데이트폭력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시점이다. 하

지만, 데이트폭력은 피해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에, 데이트폭력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의 발생 양상과 그 영향 요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최 진 외, 2019).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피해와 가해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안귀여루, 2006). 이 중 가해자에 대한 이해는 폭력 예방과 효과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지만, 피해자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정근선, 이재란, 2020). 또한 폭력 유형에 따라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진 반면,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이하은, 2024). 이러한 현상은 서경현 등(2010)의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률이 약 2.5배 높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0년 데이트폭력 발생현황 자료(2020)에 따르면 연인에게 최소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 55.4%, 남성 54.5%로 성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가해 경험이 더 많고(서경현, 2009), 통제 행동이나 경미한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정근선, 이재란, 2020). 따라서 남성도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논의는 데이트폭력 연구의 주제적, 대상적 편중성뿐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한계까지 함께 점검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데이트폭력에 대

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와 성별 간 차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하는 측정 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데이트폭력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Straus 등(1996)의 갈등 전략척도 개정판(CTS-2)을 김정란과 김경신(1999)이 국내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도구이다. 해당 척도는 가해와 피해 행동을 각각 구분하여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생이 아닌 결혼한 성인들에게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서장원, 2021), 가정폭력과 관련한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혼인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의 데이트폭력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척도는 경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데이트폭력의 동기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을 포착하기 어렵다. 그리고 감정적 각성에 의해 유발되는 표현적 폭력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통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폭력을 측정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Kimmel, 2002). 이로 인해 갈등 상황이 아닌 맥락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관계 내 파트너 폭력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Courtain & Glowacz, 2019).

한국형 데이트폭력 척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안귀여루, 2006),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는 1편으로 불과하고, 그마저도 데이트폭력 중 성적 폭력만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은, 2024).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태도, 동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다양성과 성별 차이에 따른 데이트폭력 양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척도의 개발과 검증이 요구된다.

데이트폭력 태도의 정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용 및 정당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폭력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거나 정당화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지지적인 태도는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Byers & Eno, 1992). 사회학습이론의 측면에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가해자가 친밀한 집단,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적 행동 양식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학습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성장기 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경험한 경우, 성인기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김유정, 서경현, 2009). 이러한 태도의 형성 과정에서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폭력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폭력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유외숙, 박경, 2004). 또한, 데이트폭력의 수용 및 정당화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수준이나 상황에 대한 허용성을 반영하며, 폭력의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홍영오 외, 2015). 이러한 태도는 성역할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개인일수록 이성 관계에서 폭력 사용을 보다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Price et al., 1999).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는 교제 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 수용 및 정당화, 그리고 성역할 태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는 폭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발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홍세은, 한민경, 2021). 이는 개인이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의 수준이 가해행동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선행 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및 통제 행동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순히 폭력 경험만을 측정하는 것은 갈등 외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Courtain & Glowacz, 2019). 특히, 도구적이고 통제적인 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폭력으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경험 기반의 측정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Kimmel, 2002). 이러한 배경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해 행동에서 경험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척도는 부족하고, 성별 및 폭력 유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교제 관계에서의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한영란, 2012),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부재는 예

방 및 교육의 효과적인 설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내적 차원의 이해와 예방 및 개입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성별을 구분하여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 의해 발생하는 공격 행위는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남성이 가하는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쉽게 수용되지만, 여성이 가하는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수용되지 않는다(Harris, 1991). 이는 남성의 신체적 폭력이 여성보다 부상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는 점과 여성의 신체적 폭력은 보복이나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Makepeace, 1986). 성별 및 사회적 맥락에 따라 폭력의 수용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데이트폭력 측정 도구들은 다양한 폭력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 사용 태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Price & Byers(1999)는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ATDV)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도 널리 활용되며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ATDV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태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남성과 여성이 각각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폭력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태

이트폭력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총 여섯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태도 측정 도구(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ATDV)를 국내 성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은 전문 패널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참가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표집하였으며, 연구 목적, 설문 절차, 개인정보 관리 및 폐기 방침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를 희망한 대상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여를 완료한 이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평가도구의 특성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수집하였고 다양한 연령에서 신뢰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균일하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 305명(50.1%), 여성 304명(49.9%)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인구통계학적 분류는 20대 120명(19.7%, 남성 60명, 여성 60명), 30대 120명(19.7%, 남성 60명, 여성 60명), 40대 123명(20.2%, 남성 62명, 여성 61명), 50대 125명(20.5% 남성 62명, 여성 63명), 60대 이상 121명(19.9% 남성 61명, 여성 60명)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혼인 상태는 미혼 231명(37.9%), 기혼 312명(51.2%), 동거, 함께 생활 중인 14명(2.3%), 이혼, 별거, 사별 등에

해당하는 기타가 52명(8.5%)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4명(0.7%), 고등학교 졸업 136명(22.3%), 대학교 재학 36명(5.9%), 대학교 졸업 368명(60.4%), 대학원 재학 이상 65명(10.7%)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교제 경험은 현재 교제 중은 418명(68.6%), 과거 교제 경험 있음은 161명(26.4%), 교제 경험 없음은 30명(4.9%)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의 성인 대상 적용 및 번역 절차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ATDV)는 Lisa Price & Sandra Byers(1999)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태도를 측정하기 개발한 도구이다. 당시 기존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들은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 대상이며,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대한 태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남성과 여성 각각 데이트 관계에서 가하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폭력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척도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진행하였다. 원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 성적 경험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인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청소년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태도를 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국내 성 행태 설문조사(2023)에 따르면, 첫 성 경험 연령은 남성의 65.9%, 여성의 57.4%가 20~24세에 해당했으며, 19세 이하에서 첫 성 경험을 한 비율은 남성 8.9%, 여성 6.0%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양권 문화에서는 신체적 애정 접촉과 같은 성적 경험이 14세~15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시아권 문화는 평균적으로 18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Regan et al., 2004). 이는 전통적이고 집단주의적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행동과 표현이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문화적 특성과 관련된다(Goodwin, 2013). 또한, 국내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심리적으로 미성숙하며, 성적 경험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이정민 외, 2020). 이와 같은 배경을 원저자인 Sandra Byers와 논의를 거친 후, 성적 폭력과 같이 난이도가 높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ATDV 척도의 국내 적용 대상자를 성인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본 척도는 이미 국외 연구에서 초기 성인(Hald et al., 2013) 및 성인 수감자(Boduszek et al., 2016)와 같은 다양한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며,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성적 경험과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국외에서 검증된 접근 방식을 토대로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ATDV의 성인 대상 번역을 위해 원 저자인 Sandra Byers, 교신저자, 이중 언어 통역 전문가의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문항의 개념과 의미가 성인 대상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원 저자와의 논의를 통해 문항 해석의 세부적 맥

락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이중 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역번역을 실시하고, 원 저자로부터 역번역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의미가 모호하거나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 번역 작업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여 문장 구성의 자연스러움과 가독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완과 수정을 거쳐 성인 대상 ATDV 한국어 번역본을 최종 완성하였다.

측정도구

남성의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s Male Dating Violence(이하 AMDV)는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데이트폭력 연구팀의 문헌, 캐나다 국립 가정폭력 정보센터(Canadian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 NCFV)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 정의를 반영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동의함'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의 데이트폭력 태도가 허용적임을 의미하며, 총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특징에 따른 개별적인 평가를 위해 AMDV를 3가지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각 척도들은 개별 및 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척도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척도의 문항들은 동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절반은 긍정적,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Cronbach's α 값은 .83에서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3에서 .90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s Female Dating Violence(이하 AFDV)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AMDV와 같은 절차로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의 정의를 반영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동의함' 5점까지로 점수가 매우 높을수록 여성의 데이트폭력 태도가 허용적임을 의미하며, 총 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특징에 따른 개별적인 평가를 위해 3가지 척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개별 및 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각 척도별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척도의 문항들은 동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절반은 긍정적,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Cronbach's α 값은 .75에서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77에서 .82로 나타났다.

준거척도

본 연구에서는 ATDV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활용된 선행 준거척도를 참고하였다. Straus 등(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이하 CTS-R)을 사용하여 데이트폭력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폈으며, Galambos 등(1985)의 Attitude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이하 AWSA)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를 검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준거척도를 선정하였다.

먼저, 데이트폭력 행동은 국내에서 널리 사

용되는 김정란과 김정신(1999) 번안의 한국판 갈등전략척도 개정판(이하 CTS-2)을 활용하였다. CTS-2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행동을 포함한 갈등 해결 전략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기보고식 도구로, 본 척도가 측정하는 태도와 실제 폭력 행동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교제 상대에 대한 폭력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Price et al., 1999).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의 지속과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박지희, 윤옥경, 202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기반으로 개발된 김동일(1991)의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들에서 데이트폭력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폭력 허용도를 제시하고 있다. 폭력 허용도란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의 폭력 사용에 대한 수용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용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Goldstein et al., 2008). 더불어,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져, 폭력적 관계가 유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홍미리, 2005; Próspero & Vohra-Gupta, 2007). 이는 궁극적으로 관계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데이트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정소영 외, 2011).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데이트폭력 상황에 맞게 수정한 데이트폭력 허용도 척도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ATDV의 각 척도들을 데이트폭력 행동,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데이트폭력 허용도 간의 상관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척도를 선택함으로써, 본 척도가 관련 개념들과 얼마나 유의미하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척도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 행동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TS2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에 맞게 김정란과 김경신(199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으로 총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없음.’의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로 점수가 매우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란과 김경신(199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7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1991)의 성 고정관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와 사고가 척도개발 당시와는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역할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 및 수정한 박지희와 윤옥경(202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매우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의 Cronbach's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허용도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Foo와 Margolin(1995)의 폭력 정당화(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이하 JVS) 척도를 남현미(2003)의 연구를 참고했다. 폭력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8가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폭력의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점수가 매우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TDV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문항 수준과 구조 수준의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항 수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문항반응이론에 기반한 Rasch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문항의 적합도, 난이도, 일차원성, 응답 범주의 기능 등을 평가함으로써, 개별 문항이 구성 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Rasch 분석은 응답자 특성과 문항의 속성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단위에서 정밀한 평가가 가능하며, 특히 문항 간 변별력이나 응답 범주의 기능성 등 척도 축소 및 개선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Chiu et al., 2020). 이후,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을 실시하였다. CFA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요인 구조가 실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체 모형의 적합도 및 요인 간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구조 수준에서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타당화 연구에서 CFA만으로도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는 문항들이 구성 개념과의 내적 일관성을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요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항 간 유사성이 높아 내적 일관성은 확보되더라도, 개별 문항이 응답자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구조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지만 문항의 실질적인 변별력이나 기여도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Rasch 분석은 동일한 응답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항이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으며, 변별력이 낮은 문항은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응답자의 능력 수준과 문항의 속성을 동일한 측정척도 상에서 분석함으로써, 문항 간 차별성과 구성 개념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asch 분석과 CFA는 서로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 방법으로, 두 분석을 병행하는 것은 척도의 정밀도와 구조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안되고 있다(Kelly et al., 2007). 즉, CFA는 개별 문항의 성능이나 기능적 문제를 세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문항 수준의 평가를 위해서는 Rasch 분석과 같은 문항반응이론 기반의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행동, 성 역할 고정관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는 ATDV와 이론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성개념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날 경우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본 척도가 기존의 데이트폭력 관련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적 변수들과의 실증적 연관성이 타당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통합적 개념의 타당화, Rasch

Messick(1990)이 제안한 통합적 타당도 개념은 평가 도구와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검증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타당도를 단순히 평가 도구의 특성이나 문항 자체의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측정 도구의 내용, 응답자의 반응, 측정 결과의 의미와 관련성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은 연구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척도의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척도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 척도는 폭력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여섯 가지 척도로 구성되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PAF를 활용하여 단일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PAF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중 하나로 척도의 잠재 요인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척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Fabrigar et al., 1999). 그러나 Messick(1990)이 제안한 통합적 타당도 개

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한 요인구조 탐색에 그치지 않고 척도의 타당성을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asch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Winsteps 4.1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Rasch 분석은 잔차를 활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Residuals; PCAR)을 포함하고 있다. PCAR은 데이터 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요인 구조를 검토하는 데 유용하며, 이는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Rasch 분석은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의 일종으로, 기존의 고전검사이론이 파악하기 힘든 문항의 난이도와 적절성 그리고 응답 범주까지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 즉, 척도의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할 수 있고, 각 문항의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할 수 있다. 단순히 해당 척도의 구조를 재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문항의 적합도와 측정의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이 과정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척도의 일차원성과 문항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서구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국내에서 사용할 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박소향, 서종한, 2022). Rasch 분석법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척도를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활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능한다.

Rasch의 평정척도모형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일차원성 검증, 응답 범주의 적합도, 문항 적합도, 피험자×문항난이도 분포도, 분리지수와 신뢰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평정척도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위해 일차원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AMDV와

AFDV의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으로 구분한 총 여섯 개의 척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고윳값을 확인하는 구조 측면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조 측면의 타당도란 과제 또는 영역의 구조를 나타내는 점수 모형의 충실한 정도를 뜻하고, 합리적인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오수학, 2000). 이를 바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고윳값이 3 이하일 경우 일차원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응답 범주의 적합도는 실제 측면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척도의 응답 범주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Linacre(1999)에 따라 외적합도는 2.0 이하, 단계조정값(step calibration)이 응답 범주가 커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항 적합도는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문항과 피험자 간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평가된다. MNSQ(평균제곱 적합도 통계) 값으로 적합도를 측정하며, 이 통계는 내적합도(infit statistic)와 외적합도(outfit statistic)로 나뉜다. 적합도는 해당 수치가 적절한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shel 등(2009)의 기준을 따라, 내적합도와 외적합도가 .50 이상 1.50 이하일 때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피험자×문항난이도 분포도는 Wright map라고도 하며 척도의 문항들이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문항의 난이도는 피험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로짓(logit) 단위로 나타나며, 난이도가 높을수록 문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홍세희, 조용래, 2006).

분리지수(separation index)와 신뢰도(reliability)

는 검사 점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리지수 및 신뢰도가 제시하는 수치에 따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분리지수는 문항 분리지수와 피험자 분리지수로 나뉘며 피험자 분리지수는 척도의 문항이 피험자의 수행 수준을 구분하는 민감도를 나타내고 문항 분리지수는 피험자의 표본이 항목의 난이도를 확인하기에 충분한지를 나타낸다(Suryani, & Widiyanti, 2022). 분리지수는 1.5 이상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크기가 클수록 나은 분리지수를 나타낸다(Lim, 2015). 신뢰도는 도구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문항 신뢰도와 피험자 신뢰도로 나뉜다. 신뢰도는 1에 가까울수록 도구의 측정 일관성이 향상되고 더 나은 신뢰도를 나타낸다(Klein, Fiedler, & Rose, 2011).

구성개념의 타당화, CFA

Rasch 분석을 통해 척도의 일차원성을 확인하고 문항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과정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Rasch 분석은 주로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를 탐색하고 문항의 기능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론적으로 설정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sch 분석 이후, Mplus 8.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FA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CFA는 단축형 척도의 단일 요인 구조에 대한 이론적 적합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본 연구에서는 ML 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 기준은 전통적으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90이상,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이하,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은 .10이하인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보고한다(Vandenberg & Lance, 2000).

그러나 적합도 기준은 모든 모형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유소현, 김수영, 2024), 척도의 유형에 따라 모형 적합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ATDV 척도들은 각각 단일차원 개념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척도들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문항 수가 적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RMSEA는 자유도에 크게 의존하는 지수로 자유도가 낮은 단일차원 척도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부적합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Kenny et al., 2015). 또한, 적합도 효과크기 지수와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연속성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연구자는 추정된 효과크기 지수가 가이드라인의 기준값에 근접하게 되면 적합도 자체에 큰 문제가 없음을 명시하고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유소현, 김수영,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CFI, TLI, SRMR 적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연속성을 바탕으로 모형의 유용성에 대해 넓은 관점에서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결 과

Rasch 평정척도모형

일차원성 검증

문항들의 일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Rasch의 PCAR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요

표 1. 척도별 PCAR 분석

척도	고윳값
AMDV-Psyc	2.754
AMDV-Phys	2.001
AMDV-Sex	2.051
AFDV-Psyc	2.105
AFDV-Phys	2.638
AFDV-Sex	1.984

인에 대조하여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고윳값이 3.0 이하로 나타나면 일차원성을 만족한다. 모든 척도들이 고윳값을 3.0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모두 일차원성을 충족되었으므로 Rasch 평정척도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

응답범주의 적합도

ATDV의 각 척도들의 5점 리커트 척도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여섯 개의 척도 모두 각 범주의 빈도가 모두 10보다 크게 나타났다.

모두 평균측정치가 1번 범주에서 5번 범주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측정치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범주의 내적합도와 외적합도 지수는 5점 응답범주를 제외하고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척도별로 단계조정값이 범주가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하였다.

문항 적합도

ATDV의 각 척도들에 대한 내용 측면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Anshel 등(2009)이 제시한 문항 적합도 기준인 내적합도 .50 이상, 외적합도 1.50 이하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일부 문항은 해당 기준을 벗어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외 대상으로 판단된 문항들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MDV-Psyc의 9번 문항은 내적합도 1.43, 외적합도 1.67로 적합도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또한 AMDV-Phys의 5번 문항 내적합도 1.49, 외적합도 1.85로 부적합 문항에

표 2. ATDV 문항 적합도 검증

척도	번호	문항	난이도	내적합도	외적합도
AMDV	Psyc 9	남자는 여자친구의 모든 행동을 다 알 필요는 없다. (r)	-0.16	1.43	1.67
	5	남자가 여자친구의 몸을 밀쳐낼 이유는 없다. (r)	-0.51	1.49	1.85
	Phys 11	보통 남자는 여자친구가 맞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때리지 않는다.	-1.91	2.38	2.47
AFDV	Phys 10	여자가 남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것은 전혀 괜찮지 않다. (r)	-2.74	2.69	3.60
	Sex 4	여자는 남자친구가 원하는 곳만 만져야 한다. (r)	-1.11	1.40	1.63

주. (r)은 역문항

정적으로 나타나 최종 문항으로 모두 포함되었다.

AFDV-Phys의 10번 문항은 내적합도 2.69, 외적합도 3.60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고, AFDV-Sex의 4번 문항 역시 내적합도 1.40, 외적합도 1.63으로 분석되어 부적합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AFDV-Psyc의 경우 모든 문항이 적합도 기준 내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반응 패턴도 전반적으로 안

표 3은 피험자×문항 분포도를 산출하여 각 척도들의 문항들의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 수준 간 대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이다. 가운데 로짓 선상 왼쪽은 피험자의 속성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각 척도별 문항의 난이도를 의미한다. 피험자와 문항이 위쪽으로 위치할수록 해당 척도의 속성이 높은 피험자이며, 난이도

[illegible]

가 높은 문항임을 나타낸다. M은 피험자 속성 분포와 문항 속성 분포의 평균이고 전체적으로 피험자들은 평균 능력 수준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문항 난이도는 피험자 능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AMDV-Psyc의 1번, AMDV-Phys의 4번, AFDV-Phys의 5번, AFDV-Sex의 10번 문항이 특히 높은 난이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측정 도구는 다양한 수준의 데이트폭력 태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잘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리지수 및 신뢰도

문항 분리지수는 도구 내 문항 간 차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하는지, 피험자 분리지수는 개별 피험자 간의 차이를 얼마나 잘 식별하는지를 나타낸다. Rasch 모형에서의 신뢰도는 측정 오류를 포함하지 않아 분리지수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Lim(2015)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항 분리지수가 3.0 이상, 피험자 분리지수가 1.5 이상이면 측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문항 신뢰도는 1

에 가까운 높은 값이 확인되었고 피험자 신뢰도도 수용 가능했다. 전반적으로 각 척도는 효과적인 측정과 구분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Rasch 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문항 적합도를 검증한 후, 적합도가 낮아 제외된 문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는 1요인 모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적절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표 5는 각 척도별 CFA 결과에 따른 1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척도들은 부분적으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일부 적합도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AMDV-Psyc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해보면, CFI와 TLI 지수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AFDV-Psyc의 모형적합도 지수도 CFI와 TLI가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정지수를 반영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켰

표 4 척도별 분리지수 및 신뢰도

척도	분리지수		신뢰도	
	문항	피험자	문항	피험자
AMDV-Psyc	7.07	2.07	0.98	0.81
AMDV-Phys	8.67	1.77	0.99	0.76
AMDV-Sex	6.64	2.26	0.98	0.84
AFDV-Psyc	7.28	1.87	0.98	0.78
AFDV-Phys	11.69	1.52	0.99	0.70
AFDV-Sex	6.37	1.81	0.98	0.77

주. ()은 역문항

표 5. CFA를 통하여 도출된 모형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AMDV-Psyc	1152.272**	77	.783	.744	.099	.214
AMDV-Phys	306.134**	35	.947	.932	.051	.159
AMDV-Sex	493.363**	54	.946	.934	.051	.163
AFDV-Psyc	394.396**	65	.889	.867	.069	.104
AFDV-Phys	499.383**	44	.912	.890	.083	.185
AFDV-Sex	282.608**	44	.939	.924	.056	.134

*p < .05, **p < .01

다. 각 문항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고, 의미적으로도 응답 패턴과 개념적인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정지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통계적 기준을 넘어, 이론적 근거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수정지수를 적용하였다. 첫째, 문항의 진술 방향을 기준으로 하였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 긍정 문항 간 혹은 부정 문항 간에 높은 수정지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문항의 진술 방향이 유사한 경우, 피험자들이 문항을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도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Weijters et al., 2010). 따라서 긍정 또는 부정 문항 간에 의미가 유사하고, 통계적으로도 높은 수정지수가 제시된 경우에는 잔차상관을 허용하여 응답 양상의 일관성을 모델에 반영하였다. 이는 문항의 진술 방향에 따른 응답 경향이 모델에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문항 간 의미적 중복성 및 개념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동일한 하위개념 또는 폭력의 유형을 공유하거나 유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문항들 간에 공통된 반응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심리적 테이트폭력 태도 내에서 언어적 폭력과 통제적 폭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항들은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피험자들이 유사한 맥락에서 판단을 내리며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경우 문항 간 공유된 잔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모형 적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rown, 2015). 이러한 수정지수 반영은 단순히 문항 내용이 유사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동일한 심리적 기제나 태도 반응 경로를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타당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둔 수정지수의 반영은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 척도의 구조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문항 간 개념적 유사성과 응답 경향을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정지수를 반영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AMDV-Psyc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 쌍 간에 수정지수를 반영하였다. 1번(남자는 여자친구를 모욕하면 안 된다), 2번(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지시를 하면 안 된다), 5번(남자가 여자친구를 협박할 이유는 전혀 없다), 10번(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욕

할 이유는 없다), 13번(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소리치고 언성을 높일 이유는 전혀 없다) 문항은 모두 심리적 폭력 중 언어적 폭력 사용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 가해자의 언어적 폭력 행동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요구한다. 이들 문항은 부정 문항임과 동시에 개념적 유사성으로 유사한 응답 패턴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수정지수를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응답 일관성을 모델에 반영하였다. 또한 7번(여자는 남자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과 8번(여자는 항상 남자친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 문항은 심리적 폭력에서 통제적 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모두 여성의 행동 통제와 복종을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항 간 개념적 중복성과 함께 높은 상관성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수정지수를 반영하였다.

AFDV-Psyc에서는 1번(여자가 남자친구를 협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과 2번(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욕할 이유는 없다) 문항 역시 모두 심리적 폭력 중 언어적 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이들 문항은 동일한 폭력 유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강한 연결성을 갖는다. 또한, 3번(여자는 남자친구가 옷을 어떻게 입을지 지시할 수 있다)과 13번(여자는 남자친구가 입는 옷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문항은 통제적 폭력이라는 동일한 하위개념에 속하며, 여성이 남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의미상 상보적이면서도 유사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 쌍에도 수정지수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AFDV-Phys의 경우 7번(여자는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했든 때려서는 안 된

다)과 8번(여자가 남자친구의 뺨을 때릴 이유는 없다) 문항 간에 수정지수가 반영되었다. 물리적 폭력의 정당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문항으로, 폭력적 대응의 부적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중복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문항 간 응답의 일관성을 반영하기 위해 잔차 상관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수정지수 반영은 단순한 통계적 조정이 아니라, 척도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표 6은 수정지수를 반영한 CFA를 통하여 도출한 모형적합도 지수이다. 수정 후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척도에서 CFI와 TLI 값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AMDV-Psyc의 경우 TLI의 값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TLI의 값이 .88에서 .89 사이로 추정됨에도 해당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김진숙, 권석만, 2010). 이 외에도 Bagozzi & Yi(1988)는 CFI와 TLI가 0.8이상 0.9미만일 경우에도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두 적합도인 SRMR 역시 모든 척도에서 .10 이하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상회하여 매우 적합한 값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단일차원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RMSEA는 자유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과도하게 높은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Kenny et al., 2015). 실제 분석 결과, 모든 척도에서 RMSEA 값이 일반적인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단일차원 척도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FI, TLI, SRMR 등의 나머지 적합도

표 6. 수정지수를 반영한 CFA를 통하여 도출된 모형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SRMR	RMSEA
AMDV-Psyc	500.183**	70	.913	.887	.064	.104
AMDV-Phys	306.134**	35	.947	.932	.051	.159
AMDV-Sex	493.363**	54	.946	.934	.051	.163
AFDV-Psyc	247.019**	63	.938	.924	.055	.075
AFDV-Phys	260.002**	43	.958	.946	.056	.077
AFDV-Sex	282.608**	44	.939	.924	.056	.083

*p < .05, **p < .01

주) 회색 음영은 모형적합도가 개선된 것을 의미함.

지수들은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척도들이 1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좋은 모형적합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확인적 구조방정식 모형

수정지수를 반영한 CFA 결과에 따른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다. 각 척도를 1요인으로 가정한 후, 모든 문항이 하나

표 7. AMDV 척도들의 CFA 결과에 따른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척도	문항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AMDV -Psyc	1	남자는 여자친구를 모욕하면 안 된다. (n)	.403
	2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지시를 하면 안 된다. (n)	.404
	3	여자는 친구들과 외출하기 전에 먼저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야 한다.	.415
	4	연인 관계는 여자가 남자친구를 기쁘게 할 때 가장 잘 유지된다.	.624
	5	남자가 여자친구를 협박할 이유는 전혀 없다. (n)	.464
	6	가끔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욕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742
	7	여자는 남자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716
	8	여자는 항상 남자친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	.793
	10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욕할 이유는 없다. (n)	.567
	11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에게 소리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696
	12	남자가 여자친구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772
	13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소리치고 언성을 높일 이유는 전혀 없다. (n)	.407
	14	남자친구가 싫어하면 여자는 친구를 만나러 가지 말아야 한다.	.573
	15	여자는 항상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746

표 7. AMDV 척도들의 CFA 결과에 따른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계속)

척도	문항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AMDV -Phys	1	여자친구는 남자가 때리면 헤어져야 한다. (r)	.602
	2	어떤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뺨을 맞아야 마땅하다.	.759
	3	남자가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은 전혀 괜찮지 않다. (r)	.714
	4	가끔 남자는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	.819
	6	가끔 남자는 여자친구가 화나게 하면 때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812
	7	남자가 여자친구의 뺨을 때릴 이유는 없다. (r)	.667
	8	가끔 질투는 남자가 이성을 잃게 만들어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721
	9	남자친구를 속이는 여자는 뺨을 맞아야 한다.	.735
	10	가끔 사랑은 남자가 이성을 잃게 만들어 여자친구를 때리도록 만들기도 한다.	.795
	12	남자는 여자친구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려도 괜찮다.	.798
AMDV -Sex	1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여자친구에게 성관계에 대해 부담을 줘도 괜찮다.	.840
	2	남자는 여자친구의 몸을 소유하지 않는다. (r)	.732
	3	남자는 성적으로 매우 흥분되면, 성관계를 참을 수가 없다.	.630
	4	남자는 여자친구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성관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r)	.733
	5	남자는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다면 여자친구를 만지면 안 된다. (r)	.731
	6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강요하는 것은 괜찮다.	.810
	7	남자는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려면 종종 거칠게 대해야 한다.	.815
	8	여자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697
	9	여자친구가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다.	.584
	10	여자친구에게 성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829
	11	여자친구가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다면 성관계에 대해 부담을 줘도 괜찮다.	.857
	12	안정된 연인관계에서도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 안 된다. (r)	.664

주. (r)은 역문항

표 8. AFDV 척도들의 CFA 결과에 따른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척도	문항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AFDV -Psc	1	여자가 남자친구를 협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r)	.487
	2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욕할 이유는 없다. (r)	.403
	3	여자는 남자친구가 옷을 어떻게 입을지 지시할 수 있다.	.499
	4	남자는 항상 여자친구의 말을 따라야 한다.	.703
	5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소리치고 언성을 높여도, 남자친구는 크게 상처 받지 않는다.	.773
	6	여자는 남자친구가 무엇을 하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643
	7	남자는 항상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801
	8	가끔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욕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498
	9	남자는 친구들과 외출하기 전에 먼저 여자친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495
	10	여자가 남자친구를 나쁘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705
	11	여자가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소리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637
	12	가끔 여자는 남자친구를 협박하여 말을 듣도록 해야 할 때가 있다.	.734
	13	여자는 남자친구가 입는 옷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r)	.414
AFDV -Phys	1	여자는 남자친구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때려도 괜찮다.	.865
	2	여자가 남자친구의 몸을 밀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706
	3	가끔 여자는 남자친구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761
	4	어떤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뺨을 맞아야 마땅하다.	.870
	5	가끔 여자는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기 위해 남자친구를 때려야 한다.	.863
	6	여자가 남자친구 뺨을 때렸을 때, 대부분 맞을만한 일이 있을 때이다.	.738
	7	여자는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했든 때려서는 안 된다. (r)	.548
	8	여자가 남자친구의 뺨을 때릴 이유는 없다. (r)	.570
	9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746
	11	어떤 여자는 남자친구가 말을 듣도록 패야 한다.	.858
	12	남자친구는 여자가 뺨을 때리면 헤어져야 한다. (r)	.506
AFDV -Sex	1	여자는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다면 남자친구를 만지면 안 된다. (r)	.609
	2	남자친구가 성관계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r)	.528
	3	남자는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헤어져야 한다. (r)	.667
	5	남자친구가 여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562

표 8. AFDV 척도들의 CFA 결과에 따른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

(계속)

척도	문항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AFDV -Sex	6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키스를 강요하는 것은 괜찮다.	.708
	7	여자는 남자친구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성관계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r)	.784
	8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마음을 바꿀 수 있다. (r)	.656
	9	안정된 연인관계에서도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 안 된다. (r)	.881
	10	여자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위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r)	.836
	11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531
	12	여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	.576

주. (r)은 역문항

의 요인의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이 적재되었다.

ATDV 수렴타당도 검증

표 9는 AMDV와 AFDV의 총점 및 각 척도들을 구분한 총점을 준거 척도와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먼저 AMDV의 경우, 심리적, 신체

적, 성적 데이트폭력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 = .441 \sim .524$, $p < .01$)를 보였다. 그리고 데이트폭력 행동 및 성 고정관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390 \sim .462$, $p < .01$)가 나타났다. AFDV의 경우,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은 허용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243 \sim .403$,

표 9. ATDV와 데이트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행동,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상관

	데이트폭력 행동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폭력 허용도
AMDV	.484**	.448**	.537**
AMDV-Psyc	.445**	.390**	.441**
AMDV-Phys	.402**	.394**	.495**
AMDV-Sex	.462**	.432**	.524**
AFDV	.332**	.348**	.393**
AFDV-Psyc	.281**	.283**	.338**
AFDV-Phys	.238**	.115*	.403**
AFDV-Sex	.297**	.441**	.243**

* $p < .05$, ** $p < .01$

$p < .01$)를 보였으며, 데이트폭력 행동과도 정적 상관관계($r = .238 \sim .297, p < .05$)를 나타냈다. 여성의 성적 데이트폭력 태도(AFDV-Sex)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높은 상관관계($r = .441, p < .01$)를 보였으나,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폭력 태도(AFDV-Phys)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낮은 유의미한 상관관계($r = .115, p < .05$)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태도 척도(ATDV)를 성인 일반인을 대상 타당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ATDV의 각 척도들을 Rasch 모형인 평정척도모형(RSM)을 적용하였다. 평정척도모형(RSM)을 통해서 문항의 각 척도별 일차원성 검증, 응답 범주의 적절성, 문항의 적절성, 피험자×문항난이도, 분리지수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이후, 단축형 척도의 단일 요인 구조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CFI, TLI, SRMR을 기준으로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효과크기가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면 모형의 유용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반영하여 적합도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ATDV의 각 척도들은 준거척도인 데이트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행동,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Rasch 주성분 분석을 통해 각 척도들의 고유향이 3.0 이하로 나타났고, 일차원성을 만족했다. 다음 문항의 적절성을 통해 문항들의 응답 범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척도들이 5점 응답 범주가 아닌 4점 응답 범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반인들은 중립적인 응답을 선호하는 경향과 더불어, 데이트폭력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존재할 수 있다(박지희, 윤옥경, 2023). 데이트폭력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피험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해 긍정왜곡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간 응답 혹은 1~2점 응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안되는 ATDV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문항의 적절성으로, 척도의 문항들이 전반적으로 내적합도 및 외적합도가 .5~1.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Rasch 모형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항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척도 구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들 문항은 주로 중복되는 개념이나 모호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어 피험자의 일관된 반응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적합 문항들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일부 문항은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중 부정을 포함하는 역문항 형식으로 제시되어 응답자의 인지적 혼란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Swain et al., 2008). 예컨대 AMDV-Phys의 11번 문항의 경우, 이중 부정의 표현으로 인해 적합도 기준에서 가장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부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태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응답자의 해석이 분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AMDV-Psyc의 9번 문항과 AFDV-Sex의 4번 문항의 경우, 심리적 및 성적 통제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응답자들은 이를 교제 관계에

서의 일반적인 관심이나 애정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항에 내포된 폭력 개념이 응답자에게 명확히 인식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반응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잠재 특성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연애관이나 관계적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 문항 간 일관된 반응 패턴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이는 Rasch 분석에서 요구되는 일차원성의 가정을 저해하여 문항 적합도 기준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문항을 추가로 수정하거나, 이론적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문항이 해당 폭력 유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내포하고 응답자가 이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작업으로,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피험자×문항난이도 분포도를 통해 문항들의 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 수준 간 대응을 살펴본 결과 피험자들의 능력 수준은 평균에 집중되었으며, 문항의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도구는 다양한 수준의 데이트폭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든 척도들의 문항 분리지수와 피험자 분리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 도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신뢰도는 1에 가까운 높은 값을 보였고, 피험자 신뢰도도 수용 가능하여 모든 척도들이 효과적인 측정과 구분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asch 분석 이후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ATDV의 각 척도들은 단일 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모형에서는 일부 척도에서 CFI와 TLI 값이 기준보다

낮았으나, 수정지수(Modifications Indices, MI)를 반영한 후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AMDV-Psyc와 AFDV-Psyc의 경우 일부 문항 간 높은 상관이 발견되어 수정지수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문항 간 개념적 유사성과 응답 패턴의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결과적으로, 수정 후 CFI와 TLI 값이 대부분 .90 이상을 기록하며, SRMR 또한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척도의 문항들은 모두 요인부하량 .40 이상을 나타내어 단일 요인에 안정적으로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항들이 개념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되었음을 시사하며, 각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척도에서는 CFI와 TLI 값이 .90 미만이었으나, Bagozzi & Yi(1988)의 기준에 따라 .80 이상 .90 미만의 값도 적절한 모형 적합도를 의미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단일 척도라는 특성에 따른 RMSEA의 한계를 감안할 때, CFI와 TLI를 중심으로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모형이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항 수준의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Rasch 분석과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CFA를 병행함으로써, ATDV 척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FA만으로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안정된 요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문항의 변별력이나 기능적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Rasch 분석은 응답자와 문항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분석하여, 실제로 문항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분석의 병행은 단순한 구조 확인을 넘어

문항의 실질적 기여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전략이며, ATDV 척도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춘 평가 도구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TDV의 각 척도들과 준거 측정 도구인 데이트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행동,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상관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ATDV의 척도들과 준거 측정 도구들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적 데이트폭력에 대한 태도와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은 남성들은 성적 폭력을 정상화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을 내면화한 결과일 수 있다. 사회에서 규정된 과도한 남성성을 내면화하는 남성은 강간 통념수용가 높고(박경, 2008), 이성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을 낮게 인식한다(오주령, 박지선, 2019). 이러한 남성들은 성적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서경현 외, 2010), 필요에 따라 폭력을 수용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한다(이수연 외, 2012). 즉, 데이트 성적 폭력 태도가 높은 남성은 다른 형태의 폭력까지 더 일반적이고 정당화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확장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성적 데이트폭력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 간의 관계에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심리적 요인과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행동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거부 민감성이 높고(Downey et al., 2000), 대인관계에서 거부감을 느낄 경우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Romero Canyas et al., 2010). 특히, 폭력 행위의 상당 부분은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받으며(Kahya, 2021),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당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자기방어로써 강압적인 성적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양승애, 서경현, 2014).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에 내재된 긴장과 불만은 여성의 공격적 행동을 촉발시키며(최해림, 2005), 이는 성적 폭력과 같은 강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적 폭력을 더 허용하는 경향은 거부 민감성, 전통적 성역할에서 오는 심리 및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데이트폭력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데, 이는 척도의 구성 방식과 성차를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김동일(1991)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남성 중심 규범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구성은 여성의 신체적 폭력 사용과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련성을 충분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은혜와 장진이(2022)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성 고정관념과 공격성을 동시에 지닌 집단은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았다. 특히 여성은 성 고정관념 수준이 높더라도 공격성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신체적 폭력 사용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신체적 데이트폭력 태도 간의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인 성규범에 따라 남성의 지배적 태도에 순응하려는 성역할 인식이 오히려 폭력적 행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

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신체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쉽게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동을 억제하게 만드는 심리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역할을 내면화하고, 폭력적 행동을 표출하는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태도 간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 데이트폭력의 가해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ATDV 척도의 타당화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가해자를 평가하는 척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내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갈등전략척도 개정판(CTS-2)은 데이트폭력을 위해 개발된 도구가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폭력 행동의 경험 유무로 구분하는 연구자와 빈도 및 정도의 합으로 구하는 연구들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귀여루, 2006). 결국 국내 데이트폭력 가해 연구들은 수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ATDV 척도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 중 하나인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갈등이나 경험의 맥락에서 발생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국내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ATDV 척도는 데이트폭력의 유형 및 성별을 고려한 도구로써 다양한 연구 및 실무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성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국외에서는 ATDV 척도를 활용하여 음란물 소비(Hald et al., 2013), 부정응직 문제해결, 성차별적 태도(Ünal et al., 2022)와 같은 다양한 변인과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데이트폭력 태도는 어두운 성격 특질인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Erdem, & Sahin, 2017; Boduszek et al., 2016). 이러한 연구들은 ATDV 척도가 가해자의 개인 내적 특성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에서는 다양한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과 실용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Connolly, J., et al., 2015). 국내에서도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내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와 가해자에 대한 예방, 심리적, 행동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가 시급하다(정근선, 이재란, 2020). 따라서 ATDV 척도는 데이트폭력의 태도를 폭력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정보를 구체화함으로써 가해자의 내적 차원의 이해와 맞춤형 가해 예방 및 개입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를 더욱 높였다. 기존 데이트폭력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에 한정되어 있어, 연령이 높은 사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남성의 폭력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남성의

성적 폭력 행동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이선경 외, 2015).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데이트폭력 노출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초기 성 인기와 달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폭이 축소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렵기 때문이다(최 진 외, 2019).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려하면, ATDV 척도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데이트폭력 연구와 개입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태도를 측정하는 ATDV 척도의 타당화 연구로서, 신뢰도와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여 척도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준거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척도가 데이트폭력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이 존재한다. 첫째, 일부 하위 척도에서 구조 타당성 적합도가 권장 기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타당성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Vandenberg, & Lance, 2000; 유소현, 김수영, 2024),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구조와 문항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심리적 데이트폭력 하위척도의 경우, 언어적 폭력, 정서적 괴롭힘, 통제적 행동 등 다양한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는 몇몇 문항이 통계적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는데, 해당 문항들을 단순히 제거하기보다는 개념적 타당성과 표현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폭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각 하위 개념에 대한 측정문항을 정교화함으로써 척도의 구조 및 내용 타당성을 한층 더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ATDV 척도는 국외에서 개발된 원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게 변안한 도구이므로, 문화적 차이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체면문화(강길호, 2009)와 같은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서구권과 비교할 때, 성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대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성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위가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세대 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장수지, 201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문화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면담 기반의 질적 접근을 병행하거나, 중장년층이나 데이트폭력 위험군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문항 해석 및 반응 경향을 분석하여 문항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응답 범주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5점 리커트 척도보다 4점 척도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응답자들이 중간점(3점)을 선택하거나, 1~2점 응답에 집중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덕현과 조성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을

선택하는 응답자들은 중간점이 제거될 경우 긍정과 부정 응답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권혁준 외, 2023).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간 응답 선택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중간점을 제거한 응답 형식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4점 척도를 반영한 최종 척도 구성과 응답 형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ATDV 척도의 구성 시 4점 척도를 기본 응답 형식으로 적용하여 설문 도구를 재정리하고, 실제 연구나 프로그램 평가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 경향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여 다양한 응답 범주 사용 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과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검증하였으나, 실질적 가해자 집단이나 고위험군은 태도 및 인식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개입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ATDV 척도의 예측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척도의 외적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ATDV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길호 (2009). 양자체면이론: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이론화의 한 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2, 106-131.
- 강민희 (2023).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청소년 정서적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또래수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1), 81-106.
<https://doi.org/10.21509/KJYS.2023.1.30.01.81>
- 경찰청 브리핑 (2020). 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입니다. 경찰청, 2020.
- 권혁준, 이유경, & 서종한 (2023). 한국판 SD4 (Short Dark Tetrad) 요인구조 탐색 및 타당화 연구: ESEM과 Rasch 평정척도모형을 활용하여. *경찰학연구*, 23(1), 191-230.
<https://doi.org/10.22816/polsci.2023.23.1.008>
- 김동기, 사공은희 (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99-124.
- 김동일 (1991). *성의사회학*. 문음사.
- 김유정, &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https://doi.org/10.17315/kjhp.2009.14.2.010>
- 김정란, & 김경신 (1999). 대학생이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김진숙, & 권석만 (2010). 인지행동적 요인과 부부 불만족도 사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65-288.
- 김진숙, & 문화진 (2021). 성인 남녀의 통제 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젠더 감수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727-741.
<https://doi.org/10.22143/HSS21.12.3.52>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박 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

- 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미소, & 이지연 (2021). 유기불안이 심리적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증독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248-261.
-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248>
- 박소향, & 서종한 (2022).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LSRP;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타당화 연구: ESEM과 RSM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2(3), 189-229.
- <https://doi.org/10.22816/polsci.2022.22.3.007>
- 박지희, 윤옥경 (2023).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17(2), 97-126.
- 박하나, 장수미 (2012). 성장기 부모간폭력목격 경험과 데이트성폭력피해의 관계 피해여대생 음주행동의 조절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1), 149-176.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거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https://doi.org/10.17315/kjhp.2010.15.4.013>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https://doi.org/10.17315/kjhp.2009.14.4.002>
- 서장원 (2021).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09-123.
- <https://doi.org/10.17315/kjhp.2021.26.1.007>
- 신소라 & 김연수 (2016).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4(2), 5-32.
- 안귀여루 (200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9-726.
- 양승애, & 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
- 오수학 (2000).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구인타당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 67-77.
- 오주령, &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https://doi.org/10.53302/kjfp.2019.03.10.1.47>
- 유소현, & 김수영 (202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전반적인 평가 및 효과크기와 연속성에 대한 숙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3(3), 199-230.
- <https://doi.org/10.22257/kjp.2024.9.43.3.199>
- 유외숙, & 박 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대학생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윤지환, & 김경미 (2024). 거부민감성과 자기침묵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동서정신과학*, 27(1), 57-76.
- 이서진, & 박지선 (2021).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특권의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4), 57-83.

- <https://doi.org/10.22816/polsci.2021.21.4.003>
 이선경, 허용희, &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65-81.
- <https://doi.org/10.21193/kjspp.2015.29.1.004>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5-33.
- <https://doi.org/10.33949/tws.2012..1.001>
 이수정 & 김은영 (2022).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젠더감수성의 역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7(1), 1-21.
- <https://doi.org/10.18205/kpa.2022.27.1.001>
 이영숙 (1998).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대한 가정학회지*, 36(4), 49-62.
- 이정민, 이수정, & 염현이 (2020).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령추정 연구. *이화젠더법학*, 12(2), 95-133.
- <http://doi.org/10.22791/ewhagl.2020.12.2.003>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 이하은 (2024). 데이트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7(1), 71-93.
- 이한울, & 박지선 (2022). 특권의식이 데이트관계에서의 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배경향성과 사회비교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55-575.
- <http://dx.doi.org/10.20406/kjcs.2022.11.28.4.555>
 이현정 (2018). 데이트 폭력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8(4), 153-161.
-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153>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임유하, 임하진, 이영선 (2020).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841-862.
-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6.841>
 장덕현, & 조성겸 (2017).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은 필요한가?: 중간점 있는 척도와 없는 척도 간 측정 결과 비교. *조사연구*, 18(4), 1-24. <https://doi.org/10.20997/SR.18.4.1>
- 장수지 (2011). 문화와 성역할정체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간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31-45.
-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3.003>
 정근선 & 이재란 (2020). 국내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 동향 분석. *교정담론*, 14(1), 211-241.
- 정소영, 임채영, & 이명신 (2011).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관계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127-151.
- 조은혜, & 장진이 (2022). 한국 성인의 성역할 갈등, 양가적 성차별주의, 공격성에 따른 군집 유형별 강간통념수용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1), 1-22.
- 최진, 최가연, 채정희, 송연주 (2019). 성역할 태도, 관계중독,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폭

- 력 피해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795-81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8.795>
- 최해림 (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 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99-616.
- 통계청 (2020). 「2020년 데이트폭력 발생 현황」 자료.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216-2호) 여론속의 여론. 기획: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2023.
-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정책 연구보고서의 국내 성 행태 조사결과, 2023.
- 한영란 (2012).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여성의 폭력에 대한 신념·태도와 우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3), 532-546.
<https://doi.org/10.5932/JKPHN.2012.26.3.532>
- 한정희, 허무열, & 박진희 (2021).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연구*, 12), 125-143.
<https://doi.org/10.52902/kjsc.2021.12.125>
- 홍미리 (2005). 젠더감수성 (gender sensibility) 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 홍세은, & 한민경 (2021). 성격 및 폭력태도 특성에 따른 남성의 유형화와 데이트폭력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형사정책연구*, 32(4), 1-32.
- 홍세희, &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 척도모형의 적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865-880.
- 홍영오, 연성진, &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1), 87-100.
<https://doi.org/10.1177/107780120629480>
- Anshel, M. H., Weatherby, N. L., Kang, M., & Watson, T. (2009). Rasch calibration of a unidimensional perfectionism inventory for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1), 210-216.
<https://doi.org/10.1016/j.psychsport.2008.07.006>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 74-94. <http://dx.doi.org/10.1007/BF02723327>
- Baker, C. R., & Stith, S. M. (2008). Factors predicting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7(2), 227-244.
<https://doi.org/10.1080/10926770802344836>
- Bates, E. A., Graham Kevan, N., & Archer, J. (2014). Testing predictions from the male control theory of men's partner violence. *Aggressive behavior*, 40(1), 42-55.
<https://doi.org/10.1002/ab.21499>
- Boduszek, D., Debowska, A., Dhingra, K., &

- DeLisi, M. (2016). Introduction and validation of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Scale (PPTS) in a large prison sampl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6, 9-17.
<https://doi.org/10.1016/j.jcrimjus.2016.02.004>
- Bondü, R., & Krahé, B. (2015). Links of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with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https://doi.org/10.1002/ab.21556>
- Brown, T. A. (201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Guilford publications.
- Byers, E. S., & Eno, R. J. (1992). Predicting men's sexual coercion and aggression from attitudes, dating history, and sexual response. *Journal of Psychology & Human Sexuality*, 4(3), 55-70. https://doi.org/10.1300/J056v04n03_04
- Carlson, B. E. (1987).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Social Casework*, 68(1), 16-23.
<https://doi.org/10.1177/104438948706800102>
- Chiu, M. Y. L., Wong, H. T., & Ho, W. W. N. (2020). A comparative stud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asch Analysis as item reduction strategies for SAMHSA recovery inventory for Chinese (SAMHSA-RIC).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34(2), 74-81.
<https://doi.org/10.1016/j.ejpsy.2020.02.002>
- Connolly, J., Josephson, W., Schnoll, J., Simkins-Strong, E., Pepler, D., MacPherson, A., ... & Jiang, D. (2015). Evaluation of a youth-led program for preventing bullying, sexual harassment, and dating aggression in middle school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5(3), 403-434.
<https://doi.org/10.1177/027243161453509>
- Cornelius, T. L., & Resseguie, N. (2007).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for dating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3), 364-375.
<https://doi.org/10.1016/j.avb.2006.09.006>
- Courtain, A., & Glowacz, F. (2019). Measuring dating violence: Conflict or non-conflict related instruction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9(1), 1-8.
<https://doi.org/10.1016/j.erap.2018.11.001>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0.tb00003.x>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8.tb06161.x>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https://doi.org/10.5430/ijhe.v6n6p91>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
<https://doi.org/10.1037/1082-989X.4.3.272>
- Fellmeth, G. L., Heffernan, C., Nurse, J.,

- Habibula, S., & Sethi, D. (2013). Educational and skills based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relationship and dating violenc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9(1), i-124.
<https://doi.org/10.4073/csr.2013.14>
- Fiebert, M. S. (2014). References examining assaults by women on their spouses or male partners: An updated annotated bibliography. *Sexuality & Culture*, 18, 405-467.
<https://doi.org/10.1007/s12119-013-9194-1>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351-377.
<https://doi.org/10.1007/BF02110711>
- Foshee, V. A., Bauman, K. E., Ennett, S. T., Linder, G. F., Benefield, T., & Suchindran, C. (2004). Assessing the long-term effects of the Safe Dates program and a booster in preventing and reducing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4), 619-624.
<https://doi.org/10.2105/AJPH.94.4.619>
- Galampos, N. L., Petersen, A. C., Richards, M., & Gitelson, I. B. (1985).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 (AWSA):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Sex roles*, 13(5), 343-356.
<https://doi.org/10.1007/BF00288090>
- Goldstein, S. E., Chesir-Teran, D., & McFaul, A. (2008). Profiles and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251-265.
<https://doi.org/10.1007/s10964-007-9255-6>
- Goodwin, R. (2013).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cultures*.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203434161>
- Hald, G. M., Kuypers, L., Adam, P. C., & de Wit, J. B. (2013). Does viewing explain doing? Assessing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ly explicit materials use and sexual behaviors in a large sample of Dutc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journal of sexual medicine*, 10(12), 2986-2995.
<https://doi.org/10.1111/jsm.12157>
- Harris, M. B. (1991). Effects of sex of aggressor, sex of target, and relationship on evaluations of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2), 174-186.
<https://doi.org/10.1177/088626091006002003>
- Kahya, Y. (2021).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in a Turkish female sample: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7-8), NP4389-NP4412.
<https://doi.org/10.1177/0886260518786499>
- Kelly, P. A., Kallen, M. A., & Suarez-Almazor, M. E. (2007). A combined-method psychometric analysis recommended modific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0(5), 440-447.
<https://doi.org/10.1016/j.jclinepi.2006.08.005>
- Kenny, D. A., Kaniskan, B., & McCoach, D. B. (2015). The performance of RMSEA in models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4(3), 486-507.
<https://doi.org/10.1177/0049124114543236>
- Kimmel, M. S. (2002). "Gender symmetry"

- in domestic violence: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search review. *Violence against women*, 8(11), 1332-1363.
<https://doi.org/10.1177/107780102237407>
- Klein, P. J., Fiedler, R. C., & Rose, D. J. (2011). Rasch analysis of the Fullerton Advanced Balance (FAB) scale. *Physiotherapy Canada*, 63(1), 115-125.
<https://doi.org/10.3138/ptc.2009-51>
- Lim, K. M. (2015). Application of Rasch analysis to the Korean recovery assessment sca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354-361.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354>
- Linacre, J. M. (1999). Understanding Rasch measurement: estimation methods for Rasch measures. *Journal of outcome measurement*, 3, 382-405.
- Luo, X. (2021). Gender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A comparison of Americ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1-12), 5581-5607.
<https://doi.org/10.1177/0886260518804168>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97-102. <https://doi.org/10.2307/584242>
- Makepeace, J. M.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83-388.
<https://doi.org/10.2307/584365>
- Messick, S. (1990). Validity of test interpretation and use.
<https://doi.org/10.1002/j.2333-8504.1990.tb01343.x>
- Michael, K., Goussinsky, R., Yassour-Borochowitz, D., Yakhnich, L., & Yanay-Ventura, G. (2023). Perpetration of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Israeli college students: Gender differences, personal and interpersonal risk facto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32(12), 1625-1646.
<https://doi.org/10.1080/10926771.2023.2224745>
- Plouffe, R. A., Wilson, C. A., & Saklofske, D. H. (2022). The role of dark personality trait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 multi-stud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41(6), 3481-3500.
<https://doi.org/10.1007/s12144-020-00871-5>
- Price, E. L., Byers, E. S., Belliveau, N., Bonner, R., Caron, B., Doiron, D., ... & Moore, R. (1999). The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scale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 351-375.
<https://doi.org/10.1023/A:1022830114772>
- Próspero, M., & Vohra-Gupta, S.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dating situ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2(4), 489-502.
<https://doi.org/10.1891/088667007781553928>
- Regan, P. C., Durvasula, R., Howell, L., Ureño, O., & Rea, M. (2004). Gender, ethnicity, and the developmental timing of first sexual and romantic experienc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2(7), 667-676.
<https://doi.org/10.2224/sbp.2004.32.7.667>
- Romero 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 - 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11.x>
- Straus, M. A. (2008). Dominance and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07.10.004>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 Suryani, S., & Widiyanti, E. (2022). Adapt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ndonesian Instruments of Attitudes Toward Suicide (Atts) with The Rasch Model Approach. *Jurnal Keperawatan Padjadjaran*, 10(1), 66-72.
<https://doi.org/10.24198/jkp.v10i1.1714>
- Swain, S. D., Weathers, D., & Niedrich, R. W. (2008). Assessing three sources of misresponse to reversed Likert item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1), 116-131.
<https://doi.org/10.1509/jmkr.45.1.11>
- Toplu Demirtaş, E., Hatipoğlu-Sümer, Z., & Fincham, F. D. (2017).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urkey: The Turkish intimate partner violence attitude scale-revised. *Journal of Family Violence*, 32, 349-356.
<https://doi.org/10.1007/s10896-016-9852-9>
- Toplu-Demirtaş, E., Öztemür, G., & Fincham, F. D. (2022). Perceptions of dating violence: Assessment and antece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2), NP48-NP75.
<https://doi.org/10.1177/0886260520914558>
- Ünal, Ö., Vargün, G. E., & Akgün, S. (2022). Perceived Parental Violence, Sexism, and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against Women. *Psikiyatriye Güncel Yaklaşımlar*, 14(Ek 1), 308-317.
<https://doi.org/10.18863/pgy.1168422>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https://doi.org/10.1177/109442810031002>
- Weijters, B., Cabooter, E., & Schillewaert, N. (2010). The effect of rating scale format on response styles: The number of response categories and response category label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7(3), 236-247.
<https://doi.org/10.1016/j.ijresmar.2010.02.004>
- Whitaker, D. J., Morrison, S., Lindquist, C., Hawkins, S. R., O'Neil, J. A., Nesius, A. M., ... & Reese, L. R. (2006). A critical review of interventions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perpetration of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2), 151-166.
<https://doi.org/10.1016/j.avb.2005.07.007>
- Winstok, Z., Weinberg, M., & Smadar-Dror, R. (2017). Studying partner violence to understand gender motivations-or vice-versa?.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120-127.
<https://doi.org/10.1016/j.avb.2017.01.022>
- Wolfe, D. A., Crooks, C., Jaffe, P., Chiodo, D., Hughes, R., Ellis, W., ... & Donner, A.

(2009). A school-based program to prevent adolescent dating violence: A cluster randomized trial.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3(8), 692-699.
<https://doi.org/10.1001/archpediatrics.2009.69>

논문 투고일 : 2025. 02. 10

1 차 심사일 : 2025. 04. 20

게재 확정일 : 2025. 05. 0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ATDV) Scale

Jeonghun Nam

Jonghan Sea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ATDV) scale for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in South Korea.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refer to the level of awareness, acceptance, and justification of violence that may occur in dating relationships. The ATDV scale consists of six subscales, categorized by the type of violence and gender. After collaborating with the original authors in the adaptation proces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5 adult males and 304 adult females in South Korea. Rating scale model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convergent validity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Rasch analysis confirmed that each subscale met unidimensionality and that a 4-point Likert scale was appropriate for the response categories. Item appropriateness analysis revealed that three items were excluded from the male subscale (out of 39 items) and two items from the female subscale (out of 37 items). Seco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all six subscales of the ATDV displayed a unidimensional structure, with all items fitting well within this structure. Finally, convergent valid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ith criterion measures demonstrated that the ATDV scale effectively reflects the types of dating violence and gender characteristic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tool for measuring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Attitudes Towards Dating Violence (ATDV), Validation Study, Rasch Mode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